

여수 거문도, 세계인이 찾는 'K컬처 섬 관광지'로 거듭난다

문체부 주관 'K관광 섬 육성 공모' 선정...100억원 투입 거문도 역사·환경·문화 활용 체험형 K관광 상품 개발

여수 대표 섬 관광지인 거문도에 100억 원이 투입돼 세계인이 찾는 'K컬처 섬 관광지'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K관광 섬 육성 공모사업'에 삼산면 거문도가 최종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의 비연륙 도서를 대상으로 관광과 K컬처를 융합해 세계적인 섬으로 특화시키기 위한 공모를 추진했으며 3차례에 걸친 평가를 통해 전국 5개 도서를 선정했다. 전남은 거문도를 비롯해 신안군

흑산도가 함께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4년간 100억 원을 확보하고 근대문화 수용 및 전파의 출발점이었던 거문도의 역사·환경·문화자원을 활용, 지속 가능한 체험형 K관광 상품 개발로 세계적인 섬 관광지 육성에 나선다. 주요사업으로 볼런투어(Volontour) 프로그램 추진한다. 국제 청년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연계한 문화교류활동, 마을일손 돕기 등 2030세대의 관광트렌드에 대응해 정기적으로 국외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거문도 생태지원 활용, 해안가 정화활동인 'FILL in Nature' 사업을 진행해 해양생태계를 보존하는 관광 ESG를 실현한다. 정화활동 후 거문도 해풍썩을 활용한 웰니스 프로그램과도 연계해 참여자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 밖에도 폐교를 활용한 방문객 안내센터 및 거문도 뱃노래 전수관 갤러리 조성 등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전통문화 체험의 장을 마련한다.

정재호 수산관광국장은 "이번 공모선정은 전남도와 여주시, 지역 전문가 등 모두의 협력으로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2026 여수세계박람회 주제인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와 연계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로 거문도



여수=김현근 기자
여수-거문도에서 대한민국 K관광의 관문으로 도약시키겠다"고 전했다.

순천농협 '풍년기원 영농지원 다짐 보고회' 개최

영농자재 적기공급·농산물 제값받기 등 조합원 영농편익 증진 위해

순천농협(조합장 최남규)은 최근 별량지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조합원들에게 영농자재 적기공급, 농산물 제값받기 등 조합원 영농편익 증진을 위해 '풍년기원 영농지원 다짐 보고회'를 가졌다. 따라서 이를 기점으로 순천시 전 읍·면단위 지점 보고회를 가짐으로써 농가 영농편익을 위한 전사적 영농지원 분위기를 확산키로 할 계획이다.

이날 다짐 보고회에서 순천농협은 영농자재 수요가 집중되는 농번기를 맞아 조합원들에게 농협 편익증진을 위해 ▲영농자재 주문배달 ▲영농상황실 운영 ▲병해충 방제 상담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맞춤형 판매계획을 세워 조합원 이 생산하는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펼칠 것을 결의했다.

더불어 순천농협은 지역별 핵심조합원 20~30여명으로 구성된 "편익사업 선정위원회"를 결성해 조합원들의 영농 민원 개선 사항을 수렴하여 편익농협 구현을 위한 만반의 의지를 다졌다.

또한, 농가가 현장에서 겪는 기술적인 어려움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스마트농업 창업과 기술 확산 지원을 통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농협으로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다짐했다.



순천농협 최남규 조합장은 "순천농협 임직원 일동은 변화와 혁신으로 조합원을 위해 편익농협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광양시, '중마동 관문 도로 확·포장' 출·퇴근 정체 해소

광양시는 광양항 주변 각종 개발사업 준공과 국도 2호선 개통으로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중마동 진입 관문인 성황교차로에서 대근사거리까지 도로를 확포장해 4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착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마 도심권 출퇴근 차량 정체를 해소하고 광양항 화물 물동량을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로 연장은 총 2.3km로서 성황교차로에서 컨테이너 사거리구간은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고 컨테이너 사거리에서 대근 사거리 구간은 왕복 10차로로 확장되며 진아리제 인근에는 경관 보도육교 설치로 보행 환경이 개선된다.

주거단지 인근에는 저소음 포장과 방음벽 설치로 교통소음을 저감시킴으로써 쾌적한 도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국비 87억을 포함한 총사업비 296억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020년부터 설계를 착수해 협의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 올해 1월부터는 공사 계약, 설계 검토, 시공 측량 등 공사에 필요한 사전 준비 절차를 완료해 이달 본격적인 첫 삽을 뜬 예정이다.

박옥병 도로과장은 "이번 사업은 기존 도로를 확장하고 개선하는 사업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차선 통제 등으로 인한 출퇴근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나 세심한 차량 우회 계획 등을 수립해 통행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광양=김현근 기자

보성군, 복지 사각지대 발굴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보성군은 지난 14일 보성읍 북재출에서 읍·면 맞춤형 복지 팀장과 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한 금융 연계 발생, 주거 형태 변화, 실거주지 불일치 가구 발굴 방안을 중점에 두고 추진됐다.

맞춤형 복지팀은 2차 통보된 취약계층 총 657명을 대상으로 방문 또는 우선 조사,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위기가구 파악 및

공공·민간자원을 연계할 예정이다.

또한, 참가자들은 군·읍·면 직원들 간의 정보 공유와 업무 간의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며 촘촘한 복지 실현 결의를 다졌다.

보성군 관계자는 "주민과 생활에 밀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자로서 위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연찬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성=김덕순 기자

고흥군, 조생종 벼 모내기로 한 해 풍년 기원

고흥군은 4월 17일 남양면 장담리 일대에서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올해 풍년을 기원하는 '조생종 벼 모내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죽암농장에서 실시된 이번 모내는 포트에서 모를 키위 이앙함으로써 일관적인 이앙보다는 모내기 후 뿌리 활착이 빨라 친환경 쌀 생산에 용이하고 수확 시기도 7일 정도 앞당길 수 있다.

특히, 이번에 모내기한 품종은 '고시히까리'로 단맛과 고유의 뛰어난 식감으로 인기가 높은 조생종 품종으로 4월 말까지 15ha에 식재된다. 8월 중순부터 본격 수확해 추석명절 전에 햅쌀로 출하되면 선물세트로 전국 소비

자들의 식탁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6월 중순까지 10,991ha에서 모내기가 한창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품질 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벼 육묘상자 처리제, 육묘용 상토, 유기질 비료, 토양개량제, 농산물 생산비 절감 시설·장비 등 벼 재배에 필요한 비료, 영농자재 등을 적기에 공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모내기 시연을 마친 공영민 군수는 "올해는 모든 농민들이 고품질 쌀을 생산해 풍년의 결실을 맛보고 쌀값이 안정돼 농가 소득이 증대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누가 받나요?



방임, 유기, 학대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성폭력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부지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부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부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